



특집1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백제역사유적지구 활성화 방안

백제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최완규 _ 전북문화재연구원 이사장



1. 머리말

최근 우리는 “국가 브랜드” 또는 “국격”이라는 단어를 매우 친숙하게 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확대된 경제력에 걸맞은 국가의 위상을 문화적으로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품격있게 드러내어 유형·무형의 자산을 홍보하고 활용하려는 방법으로서 경쟁적으로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다.

백제의 고도인 공주·부여, 그리고 익산지역은 2010년 1월에 각각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었다. 2011년 2월 문화재위원회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우선 선정대상 심의과정에서 세 지역을 묶어서 가칭 ‘백제역사유적지구’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도록 권고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과 충청남도는 MOU를 체결하고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등재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7월 4일 독일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결정되었는데, 남한산성에 이어 12번째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세계문화유산이란 한 국가나 한정된 지역의 문화유산을 뛰어넘어 세계의 온 인류가 공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에, 등재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의미는 잘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어야 하는 강력한 의무도 있는 것이다. 특히 등재추진과정에서 예산확보와 행정적 뒷받침, 그리고 등재추진 협의체와 이해 당사자인 주민과의 소통을 이루는 중재자로서 행정기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백제 왕도별 문화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통하여 새로운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백제 왕도별 문화적 특징

1. 한강유역

백제는 풍납토성에 도읍을 정한 후, 3세기 중후 반경 왕권 강화와 체제정비를 도모한 백제는 고구려와 낙랑, 말갈 등 북방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새로운 방어 성인 몽촌토성을 축조하고 도성제의 정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풍납토성은 북서쪽으로 한강을 끼고 축조된 남북 장타원형의 순수한 평지성이다. 현재 유실된 서벽 일부를 제외하고 북벽과 동벽, 남벽 등 약 2.1km가 남아 있으며, 서벽을 포함한다면 둘레는 약 3.5k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성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25년 대흥수 때 중국제 청동초두와 금제이식, 과대금구, 유리옥, 원문 수막새 등이 출토되면서 그 계기가 되었다.

1999년 풍납토성의 동벽 2개 지점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거대한 관축토성으로 밝혀졌다. 성벽은 우선 생토층을 정지하고 약 50cm 두께의 뽕흙을 깔아 기초를 다진 후, 하부 폭 7m, 높이 5m 정도의 사다리꼴 모양으로 중심부를 쌓은 것이 확인되었다. 기저부의 정지작업과 중심토루의 축조가 완료된 후에는 안쪽으로 사질토와 모래, 점토 다짐 흙과 뽕흙을 위주로 한 관축토루를 비스듬하게 덧붙여 내벽을 축조하였다. 내벽 마지막 토루 상면에는 강돌을 한 겹씩 깔아 3단으로 만들고, 그 안쪽으로는 깎돌을 1.5m 이상 쌓아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석렬 및 석축은 토사의 흘러내림과 밀림을 방지하고 배수의 기능도 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규모를 보면 너비가 43m, 높이 11m가 넘는 대규모로서, 더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풍납토성 내부에서는 궁전과 제사 건물지로 추정되는 특수한 ‘뽕’자형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제사에 사용되었던 용기를 폐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덩이 내에서는 말 머리뼈와 “大夫”와 “井”자명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한편 중국제 사유도기와 동진제 초두, 낙랑계 토기, 가야계 토기 등이 출토되고 있어 백제의 활발한 대외교류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몽촌토성은 남한산에서 뻗어내린 표고 44.8m의 잔구 상에 구축한 토성으로 구지형이 다른 지점보다 낮거나 자연구릉이 연결되지 않은 지점에 관축기법 또는 이와 유사한 성토법으로 축조하였다. 토성은 남북 최장 730m, 동서 최장 570m의 마름모 형태로 되어 있으며, 성벽의 길이는 성벽 정상부를 기준으로 서북벽 617m, 동북벽 650m, 서남벽 418m로서 총연장 2,285m에 달한다. 주요시설로는 문지와 망대지, 성곽을 두른 해자와 지상 건물지, 연못지, 집터, 저장구덩이 등이 발견되었다.

한편 왕족을 비롯한 최고위 계층의 분묘가 석촌동, 방이동, 가락동에서 군집을 이루고 조사되었다. 석촌동 고분군은 적석총과 토광묘계 분묘가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3호분은 전형적인 고구려계 적석총으로 제1단의 규모가 동서 50.8m, 남북 48.4m로 집안에서 최대의 적석총인 태왕릉과 비슷한 규모이다. 이러한 적석총은 일제시대만 해도 약 80기 이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석총동의 유래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고구려계 적석총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점은 백제의 최고 지배층의 출자가 바로 고구려에 있다는 점을 증명해 주고 있는 자료라 할 것이다.

석총동 3호 동쪽에서 발견된 대형토광묘와 분구묘 계통인 가락동 2호분은 이 지역에 선주하고 있었던 마한계 토착민들이 피장자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락동 고분군과 방이동 고분군의 묘제는 황혈식석실분으로 신라 진흥왕대



에 이곳에 진출하여 축조되었다는 설과 백제 지배계층의 분묘라는 두 계통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기도 하다.

2. 공주지역

공주지역 백제유적의 분포특징은 우선 웅진 도읍기의 왕성과 직접 관련된 유적인 무령왕릉, 공산성, 정지산 유적이 공주 시가지의 북쪽으로 금강에 인접하여 일정한 권역을 이루고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공주시 북쪽 외곽지역에서 확인된 수촌리 유적은 공산성 등 왕성관련 유적과 더불어 공주지역의 백제문화를 이해하는 데 주목되는 고고학 자료이다.

공산성의 성곽의 전체 길이는 2,660m이며, 1,770m는 석성으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토성이다. 현재 남겨진 성곽은 석성이든 토성이든 간에 모두 조선시대에 수축된 것으로, 반복적으로 개·보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토성 구역 중 외성 부분에서 백제시대의 석축 흔적이 남겨져 있어 이 성이 원래는 토성으로 조성되었고, 당시에 부분적으로 석축으로의 개축이 있었음으로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성에 대해서는 1980년대 이후 10여 차례 이상의 발굴조사가 있었는데, 1986년도 조사에서 추정 왕궁지가 발견됨으로써 이 성이 웅진기의 왕성으로 가능했을 것이라는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백제는 웅진기에 들어서 지배계층의 묘제가 적석총에서 석실분으로 바뀌게 되고, 석실분의 구조적 속성은 정방형이나 장방형의 평면에 편재된 연도를 시설한 웅진유형이 정착된다. 이러한 석실분은 웅진천도 이전부터 채용되었던 묘제로서 웅진천도 직후부터 왕실에서도 석실분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성왕 무령왕대에 들어와서 백제는 새롭게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 특히 무령왕릉 축조에 중국 양나라의 전축분을 채용하고 있는 의미는 왕권 강화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왕실과 재지세력과의 차별화를 띄우고 있는 고고학적 증거로 판단된다.

웅진기의 왕릉은 송산리고분군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현재 외형이 드러난 고분은 1~4호분으로 명명된 석실분, 무령왕릉, 그리고 6호 전축분과 5호 석실분외에 약 30여 기의 석실분이 확인되었다.

1971년 공주 송산리고분군 내의 6호분 배수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된 무령왕릉은 몇 가지 점에서 학계는 물론 세상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첫째, 이제까지 백제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전축분이 그것도 처녀분으로 발견되었다. 둘째, 지석과 매지권이 발견됨으로써 이 분묘의 주인공이 무령왕과 그의 왕비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100여 종 3000여 점의 화려한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삼국사기』를 비롯한 기존 역사서의 정확함을 증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령왕릉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도 백제사 연구는 물론, 나아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조명하는데 매우 귀중한 학술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무령왕릉의 구조는 연도부와 묘실부로 나뉘며, 연도의 규모는 연도부 길이 2.9m, 너비 1.04m, 높이는 1.45m이며, 천장은 터널형태를 이루고 있다. 연도를 구축하고 있는 벽돌은 바닥에서 시작하여 4단까지는 가로쌓기로, 5단째부터는 세로쌓기로 축조했는데 이러한 순서는 천장의 시작점까지 반복된다. 천장부분에 이르러서는 사다리꼴의 벽돌을 별도 제작하여 터널형태를 이루고 있다.

묘실의 구조는 연도의 축조방법과 동일하며, 규모는 길이 4.2m, 폭 2.7m, 천장높이 3.1m이고, 바닥에는 관이 놓이는 부분에 회가 두껍게 덧칠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이 편평하게 놓이게 하는 관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묘실 내부에는 북쪽 단벽에 1개, 양 장벽에 각각 2개씩 모두 5개의 보주형 등감을 설치하고 등감 바로 밑에는 창살모양의 전



들을 별도로 제작 배열하여 마치 가옥의 내부에 들어와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한편 공주시가지에서 금강을 건너 북쪽으로 6.5km 정도 거리에 있는 수춘리고분군에서는 6기의 백제고분이 조사되었다. 그 내용은 대형 토광목곽묘 2기, 횡혈식석실분 2기, 횡구식석곽분 1기, 수혈식석곽분 1기로 구성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금동관을 비롯한 금동제 식리, 환두대도, 중국제 자기 등 많은 위세품이 포함되어 있어 웅진천도 이전의 주요세력으로서 천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집단으로 상정되고 있기도 하다.

무령왕릉이 위치한 정지산의 북쪽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정지산유적은 구릉의 정상부와 남·북사면 약 3000여 평에 해당한다. 이 유적은 주거지와 저장공, 건물지, 목책, 분묘 등 다양한 유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대벽 건물지와 이곳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막새기와,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목책시설 등에서 이 유적의 성격은 웅진기에 국가적 중요시설로 비정되고 있다.

3. 부여지역

백제의 사비천도는 치밀한 계획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입지의 선택이나 왕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긴밀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배치되어 있다. 부여읍 일원에는 사찰이나 궁궐과 관련된 각종 공공건물, 공방시설, 가마터, 조정시설이, 부여읍 외곽에는 고분, 산성 등이 분포하고 있다.

궁성 또는 왕궁구역은 관북리, 구아리 일대로 추정되었으나, 관북리에서 익산 왕궁유적과 같은 대형 건물지와 정연한 도로망 흔적, 공방, 정원유구가 노출되고, 수부명의 인장과가 발견됨에 따라 이곳이 왕궁으로 비정 된다.

또한 관북리 유적 북쪽에 위치하는 부소산성은 소위 복합식 산성으로 알려졌다. 1992~1995년의 조사결과 동서의 두 지맥을 감싸고 있는 포곡식 산성만이 백제 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성벽의 축조기법은 모두 판축공법으로 되어 있는데, 판축 성벽의 기저부 폭은 5.8m~6.5m로 그 축조 공정은 성의 내부 쪽에 면한 지점부터 먼저 판축한 후 그에 잇대어 바깥쪽을 판축하는 방식이다. 성벽에는 남, 북, 동문 등 3개의 문지가 확인되었다. 이 성의 용도에 대해서는 남쪽 기슭에 관북리의 왕궁유적이 자리 잡고 있어 왕궁 배후의 후원 역할과 더불어 전쟁 시에는 피난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사비도성의 관방시설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나성으로서 석성, 보루, 목책, 장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왕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서 한반도 고대 도성사상 최초의 예이다. 나성의 축조는 부여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인 강안의 평야 지대를 보강할 수 있는 특별히 등장한 방어시설로서 사비도성의 특징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나성의 동북 모서리에 있는 청산성은 나성의 일부로서 취락지구를 보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나성의 축조시점은 538년 천도 이전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며, 그 규모는 북나성 0.9km, 동나성 5.4km로 총 6.3km에 이른다. 한편 사비도성 중심부의 금성산성은 도성 내부의 군사 거점성으로서 도성방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 사비기에는 다양한 사상과 종교의 수용을 기반으로 체제를 정비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유적으로는 불교 관련 사찰만이 남아 있다. 불교는 국가 통치이념의 선교와 구성원의 신앙활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종교로서 현재 남아 있는 지상 건조물은 정림사지 석탑만이 남아 있다. 그러나 절터는 궁성지구에 구아리 사지를 비롯한 13곳, 근교에서는 왕흥사지를 비롯하여 8곳이 전해져 오고 있어 사비시대의 불교의 융성했던 면모를 읽을 수 있다.

부여지역에 있는 백제시대 고분군은 모두 사비도성의 외곽인 나성 밖에 있는데, 사비도성 내부 거주자의 무덤은 나



성 동문 밖의 능산리, 염창리일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며, 신분에 따른 일정한 분포 정형성이 보인다. 왕릉은 능산리 고분군, 왕실 혹은 귀족들은 능산리 동고분군, 그 하부 계층은 염창리 고분군 등에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비기의 백제 왕릉인 능산리 고분군은 해발 121m정도 능산리산의 남사면에 있다. 고분군은 3기씩 앞 뒤 2열을 이루고, 여기서 다시 북쪽 후방으로 50여m의 거리를 두고 1기가 있어 모두 7기가 자리하고 있다. 능산리 고분군에 대한 조사는 1915년 東京帝大 黑板勝美와 關野貞에 의해서 2호분(중하층)과 3호분(서하층) 및 5호분(중상층)이 조사되었고, 1917에는 谷井濟一에 의해 1호분(동하층), 4호분(서상층), 6호분(동상층) 등 3기가 발굴조사 되었다.

4. 익산지역

왕궁리 유적은 그 잔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왕궁유적으로 부여 관북리 왕궁유적과 비교되고 있다. 이 유적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완만하게 경사진 지형에 남-북방향의 구릉은 삭토하여 평탄하게 조성하고 이때 굴토된 흙은 동서쪽 저지대를 대규모 성토하여 궁성의 중심공간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부에서는 자연지형을 절토·복토하여 궁성관련 건물을 축조하기 위한 평탄대지를 조성한 동서석축 4곳이 확인되었다. 특히 확인된 동서석축이 일정한 비율로 (2:1:2:1) 확인되는 보아 궁성의 내부 공간은 일정한 비례 원칙에 따라 계획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벽은 궁궐을 보호하기 위한 궁장으로 동벽 492.8m, 서벽 490.3m, 남벽 234.06m, 북벽 241.39m로 동서벽의 길이는 거의 비슷하지만, 북벽이 남벽보다 약간 넓게 계측된다. 체성부의 폭은 3~3.6m이며, 내·외부에 보도 혹은 낙수물 처리를 위한 폭 1m 정도의 부석시설과 석렬시설을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성벽의 너비는 약 10m에 이른다. 축조수법은 하부를 정지한 후, 장대석과 사구석을 이용하여 외면과 내면을 쌓고 내부에 토석혼축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왕궁의 공간 활용은 크게 왕실의 중심공간인 남측의 생활공간과 북동측의 후원과 북서측의 공방공간으로 구분된다. 왕실의 중심공간은 남측 중문과 일직선상의 정전으로 추정되는 대형건물지(건물지22)와 현 석탑 하부에서 확인된 건물지, 그리고 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와적기단건물지(건물지10)와 정원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배치상태를 도입부(출입공간)-중심부1(행정관서)-중심부2(궁궐 관련 시설)-후미부로 구분하고 특히 대형건물지(건물지22)에서 출토된 “首府”名 인장과와 규모로 볼 때 내전이나 조회 등을 치른 정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궁궐내부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화장실 유구가 궁성 내부의 서북편에서 조사되었는데, 동서석축 배수로와 연결되어 일정량의 오물이 차면 석축배수로를 통해 서측 담장 밖으로 배출된 구조를 하고 있다. 모두 3기의 대형화장실이 확인되었는데 서측의 가장 큰 화장실의 규모는 동서 10.8m, 남북 1.7m로, 내부에서 확인된 기둥으로 볼 때 동-서 5칸, 남-북 1칸으로 깊이는 3.4m 내외이다. 특히 내부 벽면과 바닥면에는 방수 처리를 위한 점토가 발라져 있다. 화장실 내부에서는 목제품과 더불어 뒤처리용 막대, 짚신, 토기편, 기와편이 출토되었으며 토양을 분석한 결과 회충, 편충, 간흡충의 기생충 알이 확인되었다.

제석사지는 원래 이곳은 帝石面이라는 행정구역명이기도 하지만, ‘帝釋寺’銘의 기와와 함께 백제 시대의 와당이 발견되어 백제시대의 제석사지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찰이 주목되는 이유는 『觀世音應驗記』에 백제 무왕대 익산 천도사실이 직접 언급됨과 동시에, 이 사찰의 화재 기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제석사지의 발굴결과를 보면 가람배치는 기본적으로 사비기의 백제 사찰과 같으며 그 규모도 매우 컸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목탑지와 금당지 사이의 서편에서 목탑과 규모와 축조수법이 동일한 방형 건물지의 기초부가 새롭게 발견되었다. 이 제석사가 왕실의 원찰이면서 제석신앙이 국조신앙과 결부된 관점에서 보면 이 방형 건물지는 시조를 모신 건물이었을 것으로 廟寺의 기



능을 수행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제석사가 소실된 이후 생겨난 폐기물들을 완벽하게 수거하여 인근에 매몰했던 것도 이 사찰에 국조신을 모시고 제사를 받들었던 신성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미륵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그 규모면에서 보면 신라의 대표적인 사찰인 경주의 황룡사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 둘째, 독립된 3개의 사찰을 한데 묶어 놓은 듯한 3원식 가람배치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독창성을 자랑한다. 셋째, 남아있는 석탑의 규모가 웅장할 뿐만 아니라, 그 구조는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화되는 과도기적인 양식으로 백제의 뛰어난 건축기술의 총체라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백제의 국력을 총동원해 조영되었을 미륵사가 일반적으로 수도로 알려진 공주 부여가 아닌 익산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법왕 금살조의 왕흥사 창건과 관련된 내용 가운데 「明年庚申 度僧三十人 創王興寺於時都泗沘城 始立裁而升遐 武王繼統 父基子構 歷數紀而畢成 其寺亦名彌勒寺.....」에서 「創王興寺於時都泗沘城」의 해석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왕흥사를 그때 수도인 사비성에 창건했다.」라 해석하여 왕흥사의 위치를 부여에 두고 있다¹⁾. 그러나 「왕흥사를 창건할 그 당시의 수도는 사비였다.」라 해석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올바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왕흥사의 창건 당시의 수도와 완성 시점의 수도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완성 시점의 수도는 익산에 비정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며, 법왕 금살조의 내용에서 익산 천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미륵사는 백제 무왕대 수도였던 익산에 건설되었던 왕업지흥사(王業之興寺)로서 왕업 곧 국가의 대업을 융성하게 하고자 염원했던 '왕흥사'였던 것이다.

무왕과 그의 왕비릉으로 전해오는 쌍릉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왕도 곧 공주나 부여가 아닌 익산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구조적 측면이나 출토유물은 논외로 하더라도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왕릉 봉토의 규모는 직경 30m, 높이 5m이며, 왕비릉은 직경 24m, 높이 3.5m로서 왕릉의 규모가 약간 크다. 그 규모 면에서는 능산리 왕릉급의 고분보다 오히려 대형으로, 쌍릉이 왕릉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출토된 유물은 목관, 도제완, 옥제장신구, 치아 3점 등이며, 왕비릉에서는 도금관식금교구편, 관정, 금동투조금구 등이다. 특히 내부에서 발견된 목관에 사용된 목재는 高野槨(こうやまき)로서 능산리에서 출토된 목관과 같은 점도 이 피장자의 신분이 왕이나 왕비였음이 증명되고 있다.

한편 왕궁을 중심으로 서쪽 2km 정도 떨어진 신동리에서 소위 대벽건물이 발견되었다. 이 유구의 구조는 능산리 대벽건물지와 평면형태나 주변에 목책 같은 시설이 있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다만 신동리에서는 앞서 지적한 대로 대벽건물지와 더불어 동일지역에 구조가 전혀 다른 일반적 성격의 백제 시대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으므로 그 성격도 서로 달랐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동리유적의 대벽건물지도 정치산유적과 같이 天地神에게 제사를 지냈던 의례시설일 가능성은 매우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익산지역에는 금마 시가지에서 북쪽으로 인접해서 저토성과 익산토성이 축조되어 있는데, 저토성은 부소산성과 같은 축조수법을 채용하고 있고, 익산토성은 석축과 토석혼축으로 축조되었다. 이 두 성곽의 발굴결과 모두 백제 시대의 것으로 밝혀졌는데, 부여 부소산성과 같이 유사시에 피난성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왕흥사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부여 부소산에서 바라볼 때 금강 건너편 규암리에 소재하는 폐사지를 지칭해 왔던 것이다. 그 이유는 이곳에서 왕흥사 명의 고려시대의 기와장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이 폐사지를 발굴한 결과, 목탑의 심초석에서 발견된 청동 사리기의 명문을 통해서 위덕왕 24년(577년)에 죽은 왕자를 위해 건립된 사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36년에 걸쳐 완성될 정도의 대규모 사찰도 아니며, 중창이나 개창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까지 보편적으로 알려졌던 왕흥사에 대한 인식을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표1〉 백제고도지역의 왕도관련유적 비교

고도	왕궁	종묘	국가제사	국찰	성곽		능묘
					피난성	방어성	
공주	공산성내 추정		정지산 유적		공산성	옥녀봉산성외	송산리고분군
부여	관북리유적	능산리 사지		왕흥사	부소산성	나성의 산성	능산리고분군
익산	왕궁리유적	제석사	신동리 유적	미륵사	저토성	미륵산성외	쌍릉

III. 세계문화유산등재의 새로운 과제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추진단에서 시행한 사업은 첫째, 등재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용역 발주, 둘째, 유산 선정을 위한 5차에 걸친 워크숍 개최, 셋째, 3차례의 학술회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사업 가운데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은 2013년 2월에 제출된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보고서 간행을 들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 :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고찰, 고대 동아시아속의 백제문화와 그 가치, 백제유적지구 유적의 특징, 비교연구, 보존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²⁾. 그런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등재대상을 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나성, 익산 미륵사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들 대상이 적용되는 세계유산의 선정기준은 10개 항목 가운데, ii)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어떤 문화지역 안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 또는 조경 설계의 발전에 관한 인간적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는 것. iii)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 있거나 소멸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있는 것. iv)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를 잘 보여주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인 것 등의 세 항목에 맞추고 있다.

또한 이들 유적의 OUV는 백제는 고대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하고 활발한 문화교류가 일어나던 곳이다. 백제인들은 외래문화를 단순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백제의 고유한 문화와 접목해 백제만의 특징적인 문화를 창조해 냈다. 현존하는 많은 백제역사유적에서 이러한 특징을 볼 수 있으나 그중에서도 백제 역사를 잘 드러내 주고 있는 대표적인 유적은 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나성, 익산 미륵사지라는 것이다³⁾.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은 바로 등재대상 유적이다. 왜냐하면 대상유적이야말로 세계문화유산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주·부여, 익산지역의 백제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공주, 부여, 익산이 경주와 더불어 왜 고도로 지정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삼국시대에 왕도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고도지역의 문화적 특징은 도성과 관련된 유적으로서

2) 2013. 02,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부여, 익산) 등재신청서 작성 1차년도 준비사업 보고서』.

3) 이왕기, 2013, 앞의 보고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형성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 세 지역의 문화유산을 묶어서 등재하는 방식은 그리 흔한 방식은 아니며, 연속유산 방식을 접목하겠지만, 이는 주로 점 단위 유산에 적용되는 방식이지 일정한 역사문화공간을 묶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드문 사례에 속하기 때문에⁴⁾, 단순히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유산신청 방식에 면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백제라는 커다란 틀 속에 이 세 지역의 유산을 묶는 형태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통분모는 무엇일까? 시간과 공간을 달리 형성되었던 왕도라는 공통점 이외에는 별다른 요소를 찾을 수 없다. 곧 도성체제라는 틀 속에서 세 지역의 문화유산을 묶는다면 백제 중기 이후의 도성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일 될 것이다.

다행히 등재추진 신청서작성 보고회를 한 1개월 뒤에 개최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의 제3차 이사회 자료⁵⁾에는 특별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등재 대상 유적이 공주지역은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부여지역은 정림사지, 나성, 관북리와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익산지역은 미륵사지와 왕궁리로 바뀌어 보고가 이루어졌다. 늦게나마 용역 연구진들이 백제유적지구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다행한 일이라 하겠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는데 있어서 고대의 왕도나 고도 그 자체가 충분조건이나 필요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유적의 성격과 유적환경에 따라 등재조건에 부합되느냐가 관건이다. 한편 익산지역에는 고대 도성과 관련된 유적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고, 더욱 경쟁력이 있는 것은 역사문화 자연환경이 아주 잘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공주나 부여의 도시화 과정에서 훼손된 도성관련 유적과 환경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지역의 미륵사지와 왕궁유적만이 등재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기타 유적이 배제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륵사를 창건한 주인공의 분묘인 쌍릉이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고, 특히 무왕에 의해서 익산의 도성 유적이 조성되었다는 점은 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왕궁과 관련된 제석사가 인근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그 전모가 밝혀졌으며, 더욱이 제석사 폐기장의 발굴조사 결과 익산천도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관세음응험기」의 신빙성이 증명됨에 따라 익산지역 도성유적의 진정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익산지역에는 무왕의 탄생과 선화공주와의 결혼, 그리고 미륵사 창건을 그리고 있는 멋진 스토리텔링이 전해오고 있다. 결국 개인이나 집단의 학문적 견해가 엄연히 존재하는 유적의 진정한 현상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역사문화적인 진정한 의미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등재대상에 대한 추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도 보존이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각 지방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세계유산등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결여된 채, 경제적,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사례도 보이는데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세계유산 등재과정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소중한 문화유산을 통해 대동단결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언제나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할 때 우리 후손에게 완전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

4) 허권, 2012. 「유네스코 세계유산관점에서 본 익산문화유산의 등재전략」, 『익산 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전략』, 세계유산등재 추진사업의 전략설정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5) 2013. 3. 26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제 3차 이사회 부의안건.